

월간

세계농업뉴스

제3호 (2000년 11월)

「세계농업뉴스」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 : //www.krei.re.kr](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이재옥	jaeoklee@krei.re.kr	02-3299-4363
	어명근	myongeor@krei.re.kr	02-3299-4364
	임송수	songsoo@krei.re.kr	02-3299-4382
	임정빈	jeongbin@krei.re.kr	02-3299-4365

목 차

I. 농업 농정 동향

1. 중국 서부대개발과 농업·농촌경제 발전
2. 중국 농민부담 문제는 농업 밖에서
3. 일본의 쌀 MMA 폐지·감축 논쟁
4. 일본 '새로운 임정의 전개방향' 발표
5. 태국의 수자원개발 및 관리현황
6. 칠레 포도주산업의 동향과 전망
7. 영국의 사유림 지원제도
8. MMA 실시율, 미국과 EU가 저조

II. 국제기구 논의동향

제3차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논의동향

III. 세계 농산물무역 정보

일본의 2000년 상반기 식료수입동향



농업 농정 동향

1. 중국 서부대개발과 농업·농촌경제 발전
2. 중국 농민부담 문제는 농업 밖에서
3. 일본의 쌀 MMA 폐지·감축 논쟁
4. 일본 ‘새로운 임정의 전개방향’ 발표
5. 태국의 수자원개발 및 관리현황
6. 칠레 포도주산업의 동향과 전망
7. 영국의 사유림 지원제도
8. MMA 실시율, 미국과 EU가 저조

중국 서부대개발과 농업·농촌경제 발전

서부지구는 풍부하고 독특한 농업자원의 이점을 지니고 있기에 중국의 중요한 농업과 목축업 지구이다. 서부대개발 전략의 실시는, 서부지구 농업과 농촌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형세의 적응을 요구하기에 몇 가지 새로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

현재 직면한 형세를 충분히 인식해야

개혁개방 이래로 서부지구의 농업·농촌경제의 발전은 현저한 성과를 가져왔다. 서부대개발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물질적인 기초를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연, 역사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현재도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은 두 가지 면으로 표현된다. 첫째, 생태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서부지구의 지표수와 토양 유실면적은 토지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고, 토지의 황폐화·사막화 면적도 전체 면적의 22.1%에 이른다. 둘째,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 수준이 비교적 낮다. 동부와 중부에 비교하여 보면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 1999년 전국 농업총생산 구성 가운데 서부, 중부, 동부의 비중은 각각 17.4%, 34.1%, 48.5%이었다. 서부지구에서는 농업노동력 일인의 농업생산량이 전국 평균의 62.6%로, 동부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부지구 농민의 일인당 순수입 역시 전국 평균의 71.6%에 불과하여 동부지구의 절반에 불과하다. 동서부 격차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농촌의 차이로, 서부경제 낙후의 핵심은 농업과 농촌경제의 낙후이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부지구의 농업기초 지위를 강화하고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서부지구 농업과 농촌경제는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당 중앙과 국무원은 서부지구 농업발전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서부지구 농업과 농촌경제는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도 발전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발전의 기본적인 인식을 명확히 해야

서부지구는 분명한 자연적인 지역경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우량 400mm를 기준으로 서부지구는 두 부분, 즉 서북부와 동남부로 나눌 수 있다. 서북부는 산시성(陝西省) 북부, 간쑤성(甘肅省), Ningxia회족자치구, 칭하이성(青海省), 신장위구르자치구, 시장(티베트) 북부와 내몽골 중서부를 포괄하며 건조·반건조지구이다. 이 지역은 온대, 한온대 기후로 초원 위주이다. 초원을 기초로 한 초지 목축업과 절수 농업, 특수 농업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동남부는 산시성 남부와 쓰촨성(四川省), 충칭(重慶), 윈난성(雲南省), 구이저우성(貴州省), 시장(티베트) 동남부를 포괄하고, 습윤·반습윤한 아열대·열대 기후를 지니고 있다. 수자원이 풍부하여 식물피복 성장에 유리하다. 관개 농업을 발전시켜 열대, 아열대 특색의 농업과 내수면 어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서부 농업과 농촌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연경제 법칙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서부지구 농업과 농촌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부대개발 전략과 농업 및 농촌경제 구조조정의 방침과 지도 하에서, 자연법칙과 경제법칙을 상호 결합하여야 한다. 발전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농업과 농촌경제의 질량과 효과를 크게 높이고, 농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동시에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건설을 이뤄내야 한다. 역사상의 경험과 교훈을 인식하여, 과거에 생존을 위해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국면을 바꿔야

할 뿐 아니라 단순히 생태적인 건설을 강조하여 농민 생계를 홀시하는 문제도 방지하여야 한다.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는, 초원생태, 특색 있는 목축업, 농업기초시설 등이다. 발전방식으로는 전통적인 농업생산과 경영방식을 바꿔 과학기술과 농업산업화, 집약화 경영 등을 도입해야 한다.

발전과정에서의 중점은?

서부지구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 내용을 제대로 견지하여야 한다.

(1) 초원보호와 건설을 강화한다.

과거에 이루어진 대량의 초원 개간과 과도한 방목으로 초원의 퇴화가 날로 심각해져, 농민들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초원보호와 건설은 서부지구의 경제발전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서 행해야 할 가장 급선무의 일이다. 현재 초지 건설과 개량을 강화하고 우량 목초지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초지에 대해서 청부경영 체제를 크게 도입하여 농민들에 의한 초지건설과 초지보호의 적극성을 끌어내어야 한다. <초원법>에 따라 초원을 보호하여, “10차 5개년 계획(2001-2005)” 기간에 초원생태 악화 추세를 미리 방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2) 특색 있는 농업과 농산품 가공업을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

서부 지구는 독특한 농산품을 생산해온 역사가 긴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근년의 실천으로 보건대, 서부 지구는 “양광농업(陽光農業)”, “녹색농업”, “한작농업(旱作農業)”, “생태농업” 등의 잠재력이 매우 크고 그 효과도 크다. 광열 자원의 이점을 충분히 이용하고 전통적인 특산품인 면화, 당료, 소채(蔬菜), 화훼, 과일, 한의약재, 엽연초 등 7대 농특산물의 생산기지를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서부지구의 저렴한 농산품 가격의 이점을 살린 농

산품 가공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농업산업화 경영을 실현하여 지역경제의 지주로 만들어야 한다.

(3) 경지를 물리고 산림이나 초지로 되돌리는 “퇴경환림(退耕還林), 퇴경환초(退耕還草)”를 차츰 추진해야 한다.

“퇴경환림, 환초”는 서부지구 생태환경 건설의 중요한 조치로 매우 복잡한 공정을 지니고 있기에, 계획에 의해 시행하되 미리 시험적으로 시행해보고 차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 조건을 존중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초지로 해야 할 곳, 산림으로 해야 할 곳, 관개해야 할 곳을 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경제 조건에 따라야 하되, 새롭게 조성된 농업생산 수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농민들이 “퇴경” 이후에 생활 수준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한작절수농업(旱作節水農業)과 생태농업을 적극 발전시킨다.

수자원의 비과학적인 이용이 서부의 농업발전을 제약하고 환경을 악화한 주요 원인이었다. 서부는 수자원이 부족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이용의 효율이 비교적 높은 한작절수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서남부는 수자원이 상대적으로 풍족하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구릉과 산지는 여전히 관개가 되지 않아 늘 농작업에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작절수농업 기술을 확대하고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관개농업을 적절히 발전시켜야 한다. 동시에 생태농업 건설로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을 개발하고, 관광농업도 발전시켜야 한다.

(5) 목축업과 목축 가공업을 빠르게 발전시킨다.

서부지구는 전통적으로 목축업의 이점을 지닌 곳이지만, 생산품종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다. 목축업의 발전은 마땅히 초지와 균형을 부합되도록 해야 하며 방목과 사육을 상호 결합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초장(草場)을 건설하고 지역을 구분하여 윤목(輪牧)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 곳의 장점인 안정적인 종돈 생산의 기초 위에서, 풍부한 밀짚자원을 이용한 소,

양 사육을 발전시켜야 하고, 일부 조건이 되는 곳에서는 특색 있는 가금류를 사육하도록 한다. 또한 축산물 가공업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6) 기본적인 농지건설을 위주로 한 농업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식량 부문은 서부대개발의 기초로, 이 역시 생태환경을 유지한다는 전제와 보장을 가지고 있다. 식량생산 발전의 주요 목표는 식량자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식량자급의 관건은 일부 식량생산 조건이 좋은 지대, 즉, 청두(成都)평원, 허시(河西)회랑, 신장(新疆) 남부, 산시(陝西)의 관중지방, 닝샤 일부 등지를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 만들고, “둔량전(噸糧田)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우량종 개발을 강화하고 농업 서비스체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농업과학기술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농산품 산지의 도매시장과 시장정보망의 구축도 중요하다.

자료 : 人民日報, 2000년 10월 8일자에서
(문순철 schmoon@krei.re.kr 농촌발전연구부)

중국 농민부담 문제의 해결은 농촌 밖에서

“농민, 농촌 빈곤”의 현실은 중국 농촌의 새로운 발전의 단계를 높이는 과정에서 직면한 모순으로, 그 주요한 원인은 과거 계획경제 하에서 형성된 “도농분리 통치, 1국 2정책”의 형식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이미 공업화 중기에 도달해 있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계의 기본적인 역량도 이미 세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와 도시민을 위한 정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정책이 따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향진(鄉鎮)의 간부들은 국가의 공무원으로, 이들 대부분은 상급 정부 부문 밑에 설치된 기구로 응당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농민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또 하나의 예로는 의무교육의 경비는 당연히 정부 재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오히려 향진 재정으로 이양하여 “농촌 행정조직 최대의 부담”으로 되어, 결국에는 농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십년간의 경험으로 보건대, 이 모든 것은 경제적 혹은 사회적 문제이며, 이것은 일부 향(鄉), 현(縣), 성(省)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로 1-2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긴 시간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이는 일반적인 정책시행의 문제가 아닌 최고위층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즉 이들 문제는 정책과 체제의 문제로 개혁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농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혁을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한다. 농촌세계 개혁은 분배 과정에서 국가, 집체, 농민 3자의 상호 이해 관계로 귀착된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안후이성(安徽省)의 세금과 비용개혁 시험구는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 이후 성 전체 농민부담은 개혁 이전에 비해 13.93억 위안이 줄어들어 이전 수준에 비해 1/4 수준이 감소하였다. 그 결

과, 농민 98%가 만족을 표시하였다.

문제는 개혁 이후이다. 위의 사례에서 본 10억 위안 이상의 재정 손실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만약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정부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이 문제될 것이다. 동부 연해의 각 성과 시, 2·3차 산업이 발달한 지구·현들은 재정능력이 비교적 커서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중서부 각 성과 지역들, 특히 농업 위주의 현, 향진들은 개혁 이후의 재정 결손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 타당한 해결방안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들 부담들이 모두 새로운 세금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세금은 법으로 정한 것으로 농민들이 모두 납부해야 한다. 또한 현, 향 재정이 여전히 곤란하여 지출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서 다시 농민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이는 농민의 이중적인 부담으로 될 것이다.

농촌 세금과 비용개혁은 중국 농촌의 토지개혁, 가정경영청부제를 잇는 중요한 개혁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농민의 관계, 농촌간부와 농민의 관계, 농민 생산의 적극성을 고려하고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며, 농촌사회를 안정시켜야 하는 거시적인 시각을 견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는 농촌 내부 개혁일 뿐 아니라 도농관계를 새롭게 조정하여야 하며, 과거의 재정체계의 특징인 상부정부 중시, 도시 중시, 부유한 지역 중시가 가지는 문제의 개혁이다. 세제와 비용에 관한 개혁을 이룬 향진이 재정상의 곤란한 점이 있으면 국가와 성에서 적절한 이전 지급 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들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증해 주어야 한다. 동시에 과거의 정부기구 과대로 인해, 필요 없는 인원의 유지로 인한 재정 손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체제의 개혁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자료 : 人民日報, 2000년 10월 13일자에서
(문순철 schmoon@krei.re.kr 농촌발전연구부)

일본의 쌀 MMA 폐지 · 감축 논쟁

유지냐, 폐지냐, 감축이냐. 내년에 열리게 될 WTO 농업협상에서, 1993년 수용한 쌀 MMA 문제에 대해 자민당 · 농림성 · 농협간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자민당과 농협 일부에서는 “MMA 쌀이 일본의 쌀시장을 위협하고 있어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농림성은 “폐지를 주장하면 관세율의 대폭적인 인하 등 보다 큰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며 신중한 자세이다. 내년 여름의 참의원선거를 맞이하여 「폐지론」이 당내에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일본이 농업분야의 협상방침을 제시하는 제안서의 제출 기한인 12월중에 결론이 나올지 미묘한 정세다.

“왜 논의 시작부터 합정을 만드는 듯한 일을 하는가”, “협상 전에 상대에게 정보를 노출하는 것과 같은 자세는 부주의하다”. 지난 10월 20일 열린 자민당 농림수산물무역대책특별위원회에서 농림성이 제출한 한 장의 자료가 파문을 일으켰다. 이 자료는 MMA 쌀을 둘러싼 협상자세에 대해 「폐지」, 「감축」, 「수준확대 방지(현행유지)」 등 3가지 선택대안을 제시한 후, 「폐지」 또는 「감축」에 대해서 「각국에서 강한 비난이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 「대가로서 관세의 대폭 감축 등이 요구된다」는 등 일본에 불리한 점을 열거하고 있다. “은근히 ‘현상 유지밖에 없다’고 유도하고 있다”(자민당 의원)라는 불만이 나온 것을 비롯하여, 농림족 실세의원인 나카가와(中川 昭一, 전농림성장관)위원장에게 반발하는 장면도 있었다.

MMA 쌀은 2000년도 미국 · 호주 · 태국 등에서 76.7만톤이 들어왔다. 그 가운데 약 10만톤은 주로 식용으로 매각되고, 나머지는 된장 · 소주 등 가

공용으로 돌리고 있다.

미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내년도는 과거 최대인 100만ha의 생산조정을 단행하는 농협 등에서는 “생산조정을 강요당하는 한편, 수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자민당과 농협은 MMA 쌀은 미가하락의 「주범」이라는 생각도 강하다. 가공용으로 돌린 MMA 쌀이 국내산 과잉쌀을 가공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식용 시장에서 국산 쌀이 과잉, 가격하락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공용으로 돌린 MMA 쌀이 외식산업 등에 주식용으로 불법 유출되어 쌀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는다. 때문에 농협과 자민당에서는 WTO의 장에서 MMA 쌀의 폐지나 적어도 감축을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그렇지만 농림성과 일부 자민당 의원은 WTO의 전 가맹국이 받아들이고 있는 원칙인 MMA의 폐지를 선진국인 일본이 솔선해서 주장하면, “신용을 잃고 세계에서 고립된다”(농림성 간부)고 우려한다. 또한 폐지에는 가맹국의 일정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모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서 쌀이나 별도의 산품에 관세 대폭 인하나 수입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국영무역」의 폐지 등 일본에게 보다 큰 양보가 뒤따를 것이 틀림없다고 보고있다.

농림성이 반발을 알고도 MMA 쌀의 선택대안을 제시한 배경에는 “쌀은 한 톨도 수입할 수 없다”라는 정치적 주장에 의해 국제적으로 고립 당한 UR의 쓰라린 경험이 있다. 농림성은 이번 협상을 “「국민적인 합의」를 기본으로 한다”라며, 협상방침을 공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현실적인 선택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면돌파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朝日新聞, 2000년 10월 26일자에서)

일본 ‘새로운 임정의 전개방향’ 발표

일본의 임정심의회는 지난 10월 11일 목재생산에 중점을 둔 현재의 임업기본법을 대폭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타니(谷洋一) 농림수산성 대신에게 제출하였다. 산림이 가지는 수원 함양 등 다양한 기능의 지속적 발전을 목적으로 정책전환과 직접지불제를 포함한 산촌진흥의 검토도 촉구하고 있다. 임야청은 이 보고를 기초로 새로운 정책대강을 연내에 수립, 여당과의 조정을 거쳐 「산림·임업기본법(안)」을 차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새로운 임정의 전개방향’이라는 이 보고는 산림의 황폐를 막기 위해 산림 소유자에게 적절히 관리할 「책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관리가 적절하지 못한 소유자에게는 市町村이 권고나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산림관리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정책의 대상을 「산림소유자」에서 「임업경영에 의욕이 있는 자」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964년에 제정된 임업기본법은 효율적인 벌채에 의한 목재생산을 지원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값싼 수입재의 공격으로 국산재의 수요는 저조, 채산성이 악화하여 임업인의 경영의욕이 감퇴하고 관리가 불충분한 산림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문제나 환경보전이 중시됨에 따라 벌채를 우선한 임업행정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목재생산을 중시하는 행정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이 보고는 「장기에 걸쳐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산림정비」라는 방향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새로운 임정의 전개방향(임정심의회, 2000. 10. 11)

1. 머리말

산림·임업·목재생산에 관한 새로운 기본정책의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임정의 구체적인 전개방향에 대해서 검토 정리하며, 향후 조속한 시책의 구체화를 요망하고 있다. 특히 임업기본법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과 동시에 관계된 정책전반을 국민의 시점에서 재구축 해야한다.

2. 정세 변화와 새로운 임정 확립

(1) 종래의 임정

지금까지의 임정은 왕성한 목재수요를 배경으로 임업총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 동안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부차적으로 발휘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2) 산림·임업·목재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

산림에 대한 국민의 요청은 국토 보전, 수자원 함량 등에서 보건·문화·교육적 이용,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다. 목재가격 하락, 임업생산비 증대 등으로 임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인공림을 중심으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산림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

건축물에서의 제재품에 대한 요구는 품질·성능이 확실한 자재로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국산재의 시장점유률은 저하되고 있다.

임업종사자의 약 8할이 거주하는 산촌지역은 인구 감소, 고령화 진전 등으로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어, 이대로 임업 생산활동이 계속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림 관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3) 새로운 임정으로의 전환 필요성

정책의 주요 목적을 목재생산을 주체로 한 것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산림정비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산림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임업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임업소유자 이든 아니든 간에 임업경영의욕을 가진 자가 산림 소유자로부터 수탁 등으로 산림의 관리나 경영을 담당하는 것을 검토한다.

목재산업을 임업과 일체화하여 국산재의 이용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도모할 산업으로 전환하고, 상품성 있는 국산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촉진한다. 또 산림의 관리나 임업의 진흥에는 산촌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농업정책이나 관계 부처와 정책 제휴를 하면서 산촌진흥을 추진한다.

(4)수치목표의 설정

목재자금률의 설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정의 지침으로서는 반드시 적당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치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때문에 산림의 적절한 관리라는 관점에서 산림·임업의 실태를 바탕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의 지속적인 발휘를 도모한다” 라는 새로운 임정의 방향에 따른 목표설정을 검토한다.

3. 새로운 임정의 구체적 방향

(1)다양한 기능의 발휘를 위한 산림의 적절한 관리 추진

다양한 기능의 지속적 발휘를 도모함과 동시에 산림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산림계획제도를 개선하고, 가장 중시해야 할 기능에 따라서 산림을 구분하고, 구역마다 가장 적절한 산림 정비를 추진한다.

건전한 산림의 육성에 불가결한 간벌 등의 시업을 확실히 실시하는 동시에 종래의 개벌·신식을 주체로 한 획일적인 시업을 개선하고, 다양한 시업을 도입한다. 경영의욕을 잃어버린 산림소유자의 시업·경영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시업·경영할 수 있도록 집약화한다. 이 경우, 市町村長에 의한 알선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체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인간에 친근한 자연으로서 생활환경의 보전, 산림과의 접촉의 장을 제공하는 부락 산림 등의 보전·정비·이용을 추진한다.

(2) 산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정비

산림 소유자에게는 산림을 적절히 관리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동시에 보육·간벌 등이 필요한 산림이나 벌채지의 방치 등에 의해 공익상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고·시정 조치 등을 강화한다.

국민적인 이해와 지원에 의한 산림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환경세나 지자체에게 법정외 목적세에 관한 검토상황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비용부담의 방안을 검토한다.

(3) 산림관리·자원이용의 지속적 이용을 담당할 임업·목재산업 진흥

지속적인 임업 생산활동을 통해서 지역전체에서 산림의 적절한 관리와 산림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임가, 산림조합, 소재생산업자 등 중에서 안정적·효율적으로 시업·경영을 실시할 수 있는 자를 육성하고, 또 임업세계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다양한 취업기회를 통해서 폭넓은 인재 확보를 도모하는 동시에 향후 산림정비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육림, 소재 생산단계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산림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임도, 작업도 등의 정비, 기계화를 추진한다.

목재산업에 대해서는 건조재 공급체제의 조기정비, 고차 가공화 등을 추진한다. 또 가공비용 절감, 신제품 개발·생산 등을 위해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폐기 등을 촉진하여 목재산업의 재편정비를 추진한다.

주택분야나 공동부문 등에 있어서 지역 재이용을 강력히 추진하며, 목재의 가스화·액화 등에 의한 바이오매스에너지로서의 이용 등 목질자원의 다각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추진한다.

외재와 경쟁할 수 있는 국산재 생산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임도 등의 정비의 중점화와 목재의 가공·유통시설의 정비를 더욱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체제를 검토한다.

(4) 공적관여에 의한 산림의 적절한 관리

공익적 기능 확보라는 관점에서 목재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보안림의 기능 확보를 위해 치산사업에 의한 산림정비를 실시하는 동시에 입지조건에 따라 임업공사 등에 의한 산림정비를 실시한다.

(5) 국유임야사업의 혁신적인 개혁 추진

국유임야를 명실공히 「국민의 산림」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6) 산촌지역의 활성화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취업기회 확보, 정착조건 정비, 도시와 산촌의 교류를 촉진한다. 산림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산림의 다양

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관점에서 지역이 실시하는 산림관리행위에 대한 시책 등 산림관리를 위하여 지역이 추진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4. 새로운 임정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행정수단

(1) 정책의 시점

정책의 주요 목적이 목재생산에서 산림의 다양한 기능 발휘라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반되는 정책수단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정조치에 대해서 효율적·중점적으로 운용한다. 또 국민의 이해를 얻어 시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홍보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시키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방의 역할분담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규율 또는 국제적인 룰의 형성에 있어서는 국제규율 등의 동향을 바탕으로 그 정합성에 유의하여 국내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2) 관계자의 노력

전체적인 정책의 기본방향 및 관계자가 추진해야 할 구체적 과제를 분명히 하고, 일정기간마다 시책의 진척상황을 검증한다.

(3) 정책의 프로그램화와 정기적인 개선

정책과제에 대해서 향후 3~5년간의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 공표하며, 프로그램에 기초한 개별 정책에 대해서 비용과 효율 등의 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5년 정도마다 정책의 전반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검증과 평가를 행한다.

(자료 : 일본 임야청, 2000. 10. 11)

태국의 수자원 개발 및 관리 현황

1. 수자원 개발 및 관리

태국은 역대 국왕이 수자원 특히 농업용수의 개발 및 관리에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현대식 시설을 통한 수자원관리는 약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태국의 수자원 개발 및 관리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태국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약 20개소가 있는데, 대표적인 기관은 수자원위원회(NWRC), 관개청(RID), 국가경제사회개발청(NESDB), 태국전력공사(EGAT) 등이다.

수자원위원회(NWRC : National Water Resource Committee)는 총리실 소속의 위원회로 산하에 20여개의 수자원 개발 및 관리기관이 소속되어 있다. 수자원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태국의 수자원 이용에 대한 모든 개발계획과 보전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수자원의 개발은 없다.

국가경제사회개발청(NESDB,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은 총리실 소속으로 국가예산을 취급하기 때문에 수자원 관리를 위한 예산의 조달과 배정을 한다. 관개청(RID, Royal Irrigation Department)은 국왕이 설립한 기관으로 농업·협동조합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의 산하기관이다. 따라서 관개청은 수자원위원회(NWRC)가 수립한 수자원이용계획에 의하여 수자원을 개발하고, 그 시설을 유지관리 한다.

태국전력공사(EGAT, Electric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는 총리실에 소속된 전력생산이 주요 업무인 국영기업이다. 태국전력공사는 1964년에 대규모 전력생산을 위해 푸미폰담을 건설하면서 설립되었다. 태국전력공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관개청(RID)에서 댐(Dam)을 건설하고 전력을 생산하였다.

1964년 태국전력공사(EGAT)가 설립된 이후에는 관개청(RID)에서 농업용수가 필요할 경우 태국전력공사(EGAT)에 요청하면 태국전력공사는 회의를 소집하여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태국전력공사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경우 ‘댐의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할 경우 원수료(原水料)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관개청의 규정에 따라 용수사용의 원수료는 무료이다. 농업용 이외의 도시 상수도 등의 용도로 댐의 물을 공급하면 0.5Baht/m³의 원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원수료는 관개청에서 징수하여 재무성으로 납부한다.

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댐의 용수공급 우선 순위는 도시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관광용수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태국의 수자원 개발과 관리는 이용계획 수립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되며, 특히 정부의 농업용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관개청이다.

2. 관개청과 수리시설 유지관리

2.1. 관개청의 조직

태국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관개청은 1942년에 제정된 『농업용수공급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관개청에는 건설국, 유지관리국, 토목국, 기계설비국 등 사업 관련 부서와 총무국, 기타 등 지원부서로 구

성되어 있다. 관개청에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유지관리국이다. 유지관리국에는 유지관리과, 기술담당관, 그리고 12개 지역관개사무소가 있다. 12개 지역관개사무소는 대규모 관개사업과와 도단위 관개사업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대규모사업과에는 용수관리계를 두고, 도단위 관개사업과에는 유지관리계를 두어 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용수관리계 및 유지관리계에는 용배수전담반을 두고 있으며, 용배수전담반에는 용수구역담당자를 두어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와 농민 또는 용수이용자그룹(WUG)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관개청의 인력은 공무원 8,000명, 임시직원 38,000명으로 총 4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46,000명의 인력 가운데서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공무원 4,000명, 임시직원 15,000명으로 총 19,000명이다.

현재 관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관개면적은 2,000만Rai(320만ha)¹에 달한다. 그리고 관개청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국가경제사회개발청(NESDB)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마련되는 정부의 일반회계예산이다. 관개청의 2000년 예산은 400억Baht로서 2000년 국가 예산 8,500억 Baht의 5% 수준이다.²

2.2. 관개청의 업무

관개청의 기능과 역할은 첫째,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조사, 설계, 시공 및 시설관리, 둘째,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한 조사, 설계, 시공 및 시설관리, 셋째, 공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조사, 설계, 시공 및 시설관리, 넷째, 용도별 용수공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개청(RID)의 주요 기능인 농업수리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내용은 수원

1) Rai는 태국에서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로서, 1ha = 6.25Rai이다.

2) 2000년 7월의 태국 환율은 1\$ = 39Baht, 1Baht = 30원이다.

공과 구조물의 수선 및 보수, 수문의 개폐, 토공수로의 현대화 등을 포함한 수로의 관리 및 정비 등이다. 현재 태국의 토공수로 현대화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부지방은 수로가 점토로 건설되어 있어 현대화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거의 현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부지방은 수로가 사질토양으로 건설되어 있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수로의 약 60% 정도가 콘크리트화 되어 있으며, 동북부지방은 현재 약 80% 정도가 콘크리트화 되어 있다. 또한 남부지방은 북부지방과 마찬가지로 수로가 사질토양으로 건설되어 있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약 50% 정도 콘크리트화 되어 있다.

3. 수리시설 유지관리원칙

태국에서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는 태국이 당면하고 있는 농업용수의 부족³⁾을 해결하는데 시설의 신규설치 못지 않게 중요하다. 태국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원칙은 ‘기본적으로 수리시설의 개발, 유지관리는 국가에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수리시설별 유지관리 주체를 보면, 수리시설 가운데 수원공에서 용수지선까지의 유지관리는 국가에서, 그리고 용수지거 이하 시설의 유지관리는 농민 또는 용수이용자단체(WUG, WUA, WUC)에서 수행한다.

4. 용수이용자단체

4.1. 용수이용자그룹(WUG, Water User Group)

3) 태국은 농업용수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의 3모작 재배가 가능한 중부지방에는 수도 2모작을 권장하며, 동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은 수도작 보다는 밭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태국의 용수이용자그룹(WUG)은 물이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분배가 어려운 지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농민조직이다. 용수이용자그룹의 업무는 첫째, 농업용수가 필요한 시기와 필요량을 관개청 현장사무소에 통보하고, 둘째, 관개청으로부터 공급된 용수를 자율적으로 급수관리하며, 셋째, 용배수지거 이하 수로의 준설과 수초를 제거한다.

용수이용자그룹(WUG)은 용수이용농가 20 - 30호 단위로 조직되며, 현재 조직된 총 용수이용자그룹(WUG)의 수는 약13,000개소이다. 용수이용자그룹(WUG)에 가입한 농가는 현재 전체 수도작 농가의 20~30% 정도인데, 이는 관개청 관개면적의 20~30%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농민들에 의한 용수이용자그룹(WUG)의 결성과 가입율이 낮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용수이용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물의 관리 및 이용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용수이용자그룹(WUG)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조직하지 않으며, 용수이용자그룹(WUG)이 조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 그러나 물의 관리 및 이용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용수이용자그룹(WUG)이 잘 조직되어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용수이용자그룹(WUG)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회비는 입회비와 연간회비로 구분된다. 입회비는 10Baht이며, 연간회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⁴ 연간회비의 형태는 ① 용수지거의 준설 및 수초제거 또는 긴급 사태로 경비가 발생될 때마다 처리한 후 경비를 각출하는 방법, ② 긴급사태를 처리할 때 노동력을 제공하면 경비를 면제하는 방법, ③ 긴급사태 발생시에 먼저 경비를 현금으로 납부한 다음 긴급사태의 처리에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임을 받는 방법, ④ 공동작업시에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면 노동력 봉사 일수 또는 봉사 시간만큼 노임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등이다. 회비는 현금 또는 노동력으로

4) Ratchaburi도의 Damnernsaduak지역에 형성된 용수이용자그룹(WUG)의 사례이다.

납부하며, 현금으로 납부된 회비는 용수지거 이하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한다. 조직된 용수이용자그룹(WUG)이 관개청에서 조직체로 인정하면 정부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농민조직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있어 관개청과 용수이용자그룹(WUG)의 관계는 용수지거이하의 수문 관리는 용수이용자그룹(WUG)에서 하지만, 수문의 개폐는 관개청에서 한다. 즉 일상적인 수문의 개폐는 관개청에서 하며, 특별히 농민이 개폐를 요청할 경우는 관개청과 농민들의 회의에서 결정하고, 수문의 개폐는 관개청에서 한다.

4.2. 용수이용자협회(WUA) 및 용수이용자조합(WUC)

용수이용자협회(WUA, Water User Association) 및 용수이용자조합(WUC, Water User Cooperatives)은 20~30개의 용수이용자그룹(WUG)을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용수이용자협회(WUA) 및 용수이용자조합(WUC)을 조직하는 목적은 첫째, 농업용수 공급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회원의 요구사항을 관개청 지소에 연락하여 처리하고, 둘째, 회원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셋째,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판매 및 영농에 필요한 생산자재의 공동구입을 통하여 회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용수이용자협회(WUA) 및 용수이용자조합(WUC)의 형태는 법인체로 등록된 것과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단체가 있다. 법인체로 등록하면 첫째, 농산물의 공동판매 및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생산자재의 공동구입 등의 영업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둘째, 등록된 법인체는 농민단체로 인정하여 정부의 융자 등 농민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용수이용자협회(WUA) 및 용수이용자조합(WUC)을 설립하면 회원을 상대로만 농자재 공동구입, 농산물공동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법적인 보호는 받을 수 없다. 법인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법인으로 등록하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용수이용자협회(WUA) 및 용수이용자조합(WUC)의 운영경비는 회원인 용수이용자그룹(WUG)이 납부하는 회비와 영업활동의 수익금, 회원에 대한 용자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운영경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다.

자료 : 태국 현지조사결과(2000. 7)
(김정부 jbookim@krei.re.kr 농촌발전연구부)

칠레 포도주산업의 동향과 전망

1. 포도주 생산동향

1.1. 기후 여건

칠레는 남반구의 최고급 포도주 생산국이며 수출국이다. 일조량이 풍부한 맑은 기후, 이상적인 토양조건, 북의 아따까마 사막, 동편의 안데스 산맥, 서쪽의 태평양, 남쪽의 한대 기후 등의 지형학적 위치로 인해 병해충 없는 포도밭이 남위 30도에 위치한 꼬킴보(Coquimbo)로부터, 40도의 떼무꼬(Temuco)까지 600마일에 걸쳐 있어 양질의 포도 생산이 가능한 데에 기인한다. 포도주의 원료가 되는 포도재배는 대부분 중부지방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중앙계곡지대는 안데스 산맥의 눈이 녹아 내려 물 공급 및 관개 설비 여건이 좋아 칠레 포도주 원료 산업의 꺾줄을 형성하고 있다.

1.2. 포도 생산 및 소비

1998년 주조용 포도의 재배면적은 7.5만 ha로 1996년 이후 매년 1만 ha 정도의 경작지가 확장되고 있다⁵⁾. 생식용 포도의 재배면적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주조용 포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포도주 생산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1998~99년 18,000ha의 신규 경작지의 확대에 기인한다. 칠레의 포도주 생산량은 1999년 4.3억 리터로 1991년의 2.8억 리터에 비해 1.5배 성장하였다.

5) prochile, Trade and investment guide-wine

표 1 포도 재배면적

단위: 헥타르

연도	주조용 포도	생식용 포도	삐스꼬(Pisco)	총계
1990	65,202	48,218	6,506	119,926
1991	64,850	47,900	7,423	120,173
1992	63,106	49,840	7,795	120,741
1993	62,192	49,333	8,226	119,751
1994	53,092	49,332	9,087	111,512
1995	54,392	49,802	9,385	113,579
1996	56,003	50,435	9,726	116,164
1997	63,550	49,641	10,009	123,200
1998	75,383	50,200	10,187	135,770
1999	-	-	-	-

주: 삐스꼬는 포도를 발효해 만든 증류주임.

자료: 칠레 농림부, Investment opportunity in Agribusiness; <http://www.odepa.gob>.

칠레의 1ha당 포도 생산량은 프랑스의 동일 면적 대비 두 배가 되며, 1ha의 땅에서 생산되는 cabenet 포도는 프랑스의 같은 면적에서 생산되는 양의 두 배에 해당한다. 즉, 1 ha의 경작지에서 칠레는 1만 kg의 포도생산이 가능한 반면, 프랑스는 5000kg 이상을 생산해 내기 어렵다. 이는 칠레가 포도주 가격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많은 대기업들이 전통적 가족기업을 대체함으로써 점차 기술집약적인 대형 산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포도주 생산은 Fine wine(고급 포도주)과 Table wine(대중 포도주)으로 구분된다. 최근 확장되고 있는 포도 경작지는 Fine wine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Fine wine은 점차 해외 수요가 늘고 있어 향후 생산이 증대될 전망이다. Fine wine 생산은 소비자의 소득 수준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고급(high end)시장이 주 타깃이고, Table wine은 90%가 칠레에서 소비되는 대중주이다. Table wine의 수요는 저 알코올 주류, 즉 맥주에 의해 대체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하락하는 추세이다. 칠레 내

에서도 동 상품의 가격은 하락추세에 있으며, 경작지도 감소하고 있다.

현재 칠레에서 생산되는 주조용 품종은 대부분 프랑스에서 전래된 것으로 Carbernet sauvignon, Borgona(burgundy), Chardonny, Meriot, Pommard, Pinot noir, Riesling, Rhine, Chablis, Sauvignon blanc, Semillion, Sauterns 등이다. 이 중 대표적인 품종은 적색 포도주용인 Carbernet sauvignon, Meriot 및 Pinot noir 그리고 백색 포도주용인 Chardonny와 Sauvignon blanc 등이다. 1997년 칠레의 포도경작지 중 47% 정도가 Carbernet sauvignon 생산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Sauvignon blanc은 19.2%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포도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증가하는 고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Carmenere 와 Syrah 같은 고급 품종이 생산자에게 도입되고 있다.

표 2 포도주 생산

단위: 백만 리터

연도	Fine wine(A)	Table wine(B)	(A)+(B)	PISCO
1991	237.4	44.8	282.2	73.1
1992	212.8	103.8	316.5	95.0
1993	224.0	106.3	330.3	108.3
1994	276.7	83.2	359.8	121.6
1995	290.9	25.8	316.7	129.6
1996	337.3	45.1	382.4	143.6
1997	381.5	49.2	430.7	131.8

자료: 칠레 농림부, Investment opportunity in Agribusiness

표 3 주조용 포도의 품종별 재배면적 점유 비율

품종	Car. Sauvignon	Sauvignon bla.	Chardonny	Meriot	Pinot Noir	Riesling	Chenin Bl
비율(%)	46.5	19.1	16.2	15.7	1.2	1.0	0.3

자료: 칠레 농림부, 1997.

칠레의 대표적인 제조업체는 Undurraga, Canepa, Miguel Torres, Santa

Ines, Errazuriz, La Rosa 등이며, 칠레 최대의 포도주 수출업체는 Concha y Toro이다. 이들 업체들은 저장 설비에의 지속적인 투자, 생산공정의 개선 등을 통해 1인당 연간 포도주 소비량(2000년 현재 21리터)의 증가와 수출 여력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포도주 생산관련 관리·감독기관은 ‘동식물검역청(SAG)’이며, SAG는 칠레산 포도주의 질과 음료가능 여부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소비는 연평균 18~19리터에 불과하지만, 2000년대에는 20리터 수준을 상회할 것이다. 이는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여타 국가의 70~80리터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포도주는 다양하게 상품화되어 국내외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주로 “chuico(츄이꼬)”라는 칠레의 전통적인 용기에 담긴 “Tinto(적포도주)” 혹은 “Blanco(백포도주)” 형태로 많이 소비되고 있다. 반면에 프리미엄 포도주는 정통 유럽형 병에 담겨져 주류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호텔 등지에서 소비되고 있다.

2. 칠레산 포도주의 세계적인 위치

2.1. 생산

1999년 세계 포도주 총생산량은 2,800만톤으로 1997년 2,642만톤, 1998년 2,652만톤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전통적 생산국의 점유비는 57%에 달하고 있다. 이외의 국가로는 미국, 아르헨티나 순이며, 중국은 50만톤을 상회하면서 11위에 랭크되었다. 칠레의 포도주 생산은 1997년 45만톤(세계 총생산량의 1.7%), 1998년 55만톤(2.1%)에서 1999년에는 48만톤으로 세계 포도주 생산의 1.7%를 기록하여 생산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생산 물량의 64%가 수출되어 수출국 순위에서는 상위에 랭크되었다.

2.2. 수출

1998년 세계 포도주 총 수출량은 670만톤, 총 수출액은 140억 달러로 톤당 2,100달러 수준이었다. 국별 현황을 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3국이 세계 포도주 시장의 65%를 상회하고 있으며, 칠레는 수출 물량 면에서 4위, 수출액면에서는 제 7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는 톤당 수출가격이 1,460달러로 낮은 데에 기인한다.

표 4 세계 주요국의 포도주 생산동향(1999년)

국 별	생 산 량	비 중
세계 총생산량	27,943,922	100
프랑스	6,264,500	22.4
이탈리아	5,806,303	20.8
스페인	3,297,620	11.8
미국	2,045,000	7.3
아르헨티나	1,254,680	4.5
독일	1,228,597	4.4
남아공	877,500	3.1
호주	741,547	2.7
포르투갈	679,218	2.4
루마니아	650,357	2.3
중국	520,000	1.9
칠레	475,515	1.7

자료: FAO, 2000.

표 5 세계 주요국의 포도주 수출동향(1998)

단위: 톤, 천 달러

수출량			수출액		
국별	물량	비중	국별	금액	비중
세계	6,697,670	100	세계	13,860,846	100
프랑스	1,636,456	24.4	프랑스	5,890,723	42.5
이탈리아	1,519,105	22.7	이탈리아	2,365,195	17.1
스페인	1,024,929	15.3	스페인	1,286,912	9.3
칠레	349,650	5.2	호주	611,429	4.4
호주	314,597	4.7	포르투갈	528,281	3.8
미국	252,013	3.8	미국	512,140	3.7
독일	222,595	3.3	칠레	510,422	3.7
			독일	435,238	3.1

자료: FAO, 2000.

3. 칠레 포도주 수출 동향

3.1. 수출 현황

1998년 칠레 포도주 수출액은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2.3억 리터, 금액으로 5억 달러를 역사상 처음으로 상회하였다. 이는 국내 생산의 80%가 수출되었음을 의미하며, 구리, 어분, 신선과일(14억), 펄프(6.8억) 등과 더불어 칠레의 주요 수출전략 상품으로 성장하였다.

1999년의 경우 칠레의 농림축산물 총 수출액은 47억 달러였으며, 이 중 농산물이 27억 달러로 57.4%, 축산물이 1.6억 달러로 4.3%, 임산물이 18억 달러로 38.3%를 각각 기록하였다.⁶ 1999년 칠레 포도주의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액의 10.9%에 달해 수출에서의 비중이 커지

고 있는 추세이고, 품목별로는 화학목재펄프에 이어 제 2의 수출상품으로 변모하였다. 수출량으로는 1987년 1,400만 리터에서 1999년 2.5억 리터로 급증하였다.

칠레산 포도주 전체 생산의 50% 이상이 유럽, 미국 및 일본으로 수출된다. 국별 수출 현황을 보면 영국이 1억 달러로 1위, 미국이 7,000만 달러로 2위, 일본이 2,100만 달러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외 주요 수출시장은 캐나다, 독일, 덴마크, 스웨덴, 네델란드, 아일랜드, 브라질 등이 있다.

1990~2000년 10년간 포도주 수출업체수는 16개에서 110개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9년 주조용 포도 재배면적이 8만 3,000ha에 이르는 등 원료의 안정적 공급 요인 발생에 기인한 것이다. 주요 수출업체는 Concha y Toro 외에 Santa Rita와 Vina San Pedro 등이다.

칠레의 포도주 수출은 인건비, 농지 및 물 등의 코스트가 서구제국에 비해 저렴하여 가격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산 5,000~6,000엔 정도의 포도주의 경우 칠레산은 1,000엔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한편 칠레 포도주는 품질에 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세계적인 포도주 및 주류 경연대회인 "CIVART"에서 대금상 2개와 우수상 6개를 획득하여 프랑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하여 세계수준의 높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포도주 품질별 수출 구성을 보면 90%정도가 Fine wine으로 table wine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칠레산 Fine wine은 세계수출시장에서 단지 3%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경쟁력 있는 가격과 포도주의 질을 유지한다면 5%까지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6) 칠레, ODEPA, BOLETIN ESTADISTICO COMERCIO EXTERIOR SILVOAGROPECUARIO, 2000.8.

포도주 등급별 면에서는 최근 원산지 명칭이 부여된 형태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 ‘appellation d’origine’ 포도주 수출은 3,860만 달러정도 였으나 1997년에는 2억 6,840만 달러로 거의 600% 가까이 성장하였다. 칠레산 포도주 수출의 특징은 북반구 지역의 날씨가 포도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연말 3개월 동안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칠레는 포도주의 수출진흥을 위해 외무성의 PROCHILE와 민간 기구가 공동으로 일본, 싱가포르, 태국 및 홍콩 등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포도주 수출개척단을 파견하여 세미나, 시음회, 상담 등을 실시하는 한편 현지 에 대리점을 개설하여 큰 수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칠레산 포도 및 포도주의 주요 아시아 수입국이다.

3.2. 일본의 칠레산 포도주 수입 동향

일본의 칠레산 포도주 수입 증가는 일본에서의 포도주 소비 선호 경향이 높아지는 것에 기인한다. 일본 경제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1993년까지 포도주 소비는 감소하였으나, 1994년 이후 국산·수입산 포도주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의 포도주 소비는 16만 6,827kl로 1993년에 비해 1.5배 신장하였다. 이는 1994년 이후 대내외적으로 낮은 가격의 포도주 공급이 원활하여 졌으며, 특히 적포도주가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에 힘입은 바 크다.

칠레포도주수출협회는 아시아국가들의 풍부한 인구나 높은 소비수준을 고려하여 아시아를 포도주의 잠재적 소비시장으로 규정하고 수출 진흥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적색포도주가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소비자의 취향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일본을 주목하고 있다.

표 6 일본의 칠레산 주요 농산물의 수입현황(1997)

7) Sebastian Bisquertt, CAV포도협회 회장의 의견.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Report 발췌

품목명	총 수입량 (A)	칠레산 (B)	B/A %
생식용 포도(톤)	7,351	4,805	65.4
포도주 (kl)	147,438	7,198	4.9

자료: 일본, Food & Agriculture, 1998. 3. 30.

증가 일로에 있는 수입산 포도주 가운데 특히 신흥산지로 알려진 칠레산 포도주의 수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칠레산 포도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은 저렴한 반면에 품질이 높다는 점에 기인한다. 칠레산 포도주 수입량은 1993년에 1,480kl에서 1997년에는 7,198kl를 차지하면서 4.9배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본의 포도주 총 수입량의 4.9%에 해당한다. 수입의 특징은 부가가치가 높은 병 포도주가 벌크 포도주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병 포도주 수입 동향을 보면 1994년 칠레는 9위에 랭크된 이래 1995년에는 8위, 1996년 6위, 1997년에는 5위로 그 지위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

일본의 1인당 연간 포도주 소비량은 1997년 현재 약 1.3ℓ 정도로 프랑스의 60ℓ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나 조만간 5ℓ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 포도주의 수요 확대는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일본의 소비자에게 칠레산 포도주를 시음할 기회가 보다 많이 주어지고, 일정한 품질의 포도주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일본 시장에서 칠레산 포도주의 수입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는 향후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장을 지향하는 수출 다변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 포도주 업체는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이 향후 2000년에는 1995년의 2배 이상인 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3. 우리나라의 대칠레 포도주 수입 동향

우리나라의 포도주 수입은 1999년 1,512만 달러, 5,762톤에 달했다. 프랑

스는 금액대비 55.4%, 물량대비 45.1%로 최대 수입국이 되었으며, 이어 미국, 독일, 이태리, 호주, 스페인, 칠레, 일본, 뉴질랜드 순이 되었다. 칠레는 금액대비 2.4%, 물량대비 1.8%를 차지하였다.

1999년 우리나라의 대칠레 전체 수입액은 6.1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포도주(2204)는 36만 달러, 9만 리터(104톤)가 수입되어 그 비중은 0.06%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0년 8월 현재 칠레로부터의 포도주 수입은 이미 전년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IMF의 여파로 수입이 크게 급감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다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4. 포도주산업의 경쟁력 요인

포도주 산업의 경이적인 발전을 이루게 한 요소로는 포도 재배를 위한 천혜의 지리적·기후 조건 외에도 정부의 세계화 노력, 환경친화적인 생산 공정 개발, 천연적인 산화방지제 및 향의 가미, 숙련 노동력의 풍부,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품종 개량, 민·관 협동차원의 해외인지도 제고 등에 기인한다.

천혜적인 지리적 위치, 남반구에의 위치, 기후, 물 등 이러한 모든 여건은 양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포도를 이용해 포도주 산업은 경쟁력을 지닐 수 있었다. 또한 지리·기후 등 여건은 천연적으로 포도주에 산화방지제 및 향이 가미되어 양질의 포도주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의 수출마인드를 지닌 수출 정책의 추진 역시 칠레 포도주 산업의 발달 요인 중의 하나이다. 칠레는 국내 소비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증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자국산 포도주의 수출 확대(농산물 포함)를 위해 조건없이 일방적으로 자국의 관세율을 감

축⁸하는 한편 세계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위한 규제 완화(칠레는 케언즈 그룹에 속함) 노력과 포도주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농산물 수출진흥을 민간 차원에서 보다 경쟁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외무성 소속의 독립 법인 형태인 칠레무역위원회(PROCHILE)⁹를 설립하였다. PROCHILE는 민간업체를 위한 해외시장조사 및 수출촉진 캠페인 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해외시장개척프로그램, 해외시장촉진프로그램, 해외시장안정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포도주 관련 주요 핵심사업은 해외시장개척 관련 사업 및 박람회 참가 관련 지원 등이 있으며, 해외공관에는 상무관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국의 시장동향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여 국내 관련업체에 제공한다. 이 같은 관·민일체하의 농산물 수출진흥체제는 칠레 포도주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유럽 등 포도주 생산업체들의 대칠레 투자에서 이들 기업들은 투자 외에도 최신 기술을 이전하고 있는데, 이는 포도생산을 위한 칠레의 유리한 자연조건, 안정적인 경제상황 및 성장 잠재력에 기인하는 것이다. Bodegas torres(스페인)이나 Chateau Lafitte(프랑스)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칠레 포도주 산업 발달에 큰 기여를 하였다.

최근에는 Robert mondevi, Pernoid ricardo, Kendall-Jackson, Chateau Larose-trintaudon, Paul Pntalier, BrunoPrat, Grand Marnier 등의 회사가 칠레

8) 칠레는 개방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999년 현재 모든 품목에 대해 단일관세율인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1%씩 삭감하여 2003년에는 6%로 감축할 예정이다.

9) PROCHILE는 우리 나라의 KOTRA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임. 세계 곳곳에 69개의 무역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무역증대 및 투자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

포도주 산업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였다. 이들은 칠레 포도주 생산업자들과 Joint-venture의 형식 등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주로 고급 및 고가 포도주의 연중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칠레 포도주 산업의 발달은 포도 부문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투자 유입, 관·민 수출 공조체제 확립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그리고 해외 수요 확대 등의 요인에 힘입어 칠레산 포도주의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5. 전망

칠레의 포도주 생산은 2001년에 10%가 증가한 5.5억 리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조용 포도 재배면적의 증가, 품질 및 가격 개선 등의 요인으로 수출 확대 요인은 존재하나 향후 세계 수출시장에서 비전통 포도주 수출국인 호주, 아르헨티나, 남아공, 헝가리 및 루마니아 등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상반기 1~6월 칠레산 포도주의 수출은 전년 대비 23.5%가 증가한 2.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병 포도주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물량으로는 1.5억 리터를 상회하며, 수출 평균 가격은 2.19달러/ℓ 였다. 전년 대비 물량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수출가는 다소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출 증가를 보면 전통적 수출시장인 북미 및 유럽이 주도하였다. 미국은 전년 동기대비 20.7%, 캐나다 25.8% 및 멕시코 45.7%의 성장률을 각각 기록하였다. 유럽 시장의 경우 더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프랑스 117.7%, 스웨덴 64.5%, 덴마크 40.2% 및 독일 20.2%를 각각 기록하였다. 이외에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44.8%의 성장에 기인하였다.

2000년 칠레산 포도주의 총 수출액은 6억 달러로 전망되는데, 이는 2000

년까지 연간 5억 달러를 지원하는 포도주 수출관련 프로젝트에 기인한다. 따라서 포도주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될 것이며,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칠레 포도주 산업계는 2001년부터 3년간 품질 개선, 최근 입식된 포도의 향후 생산 흡수 능력 확대, 수출물량 확대 등을 지원하고자 2.5억 달러의 신규 인프라 투자를 단행할 것이다. 또한 양질의 포도주 생산 및 수출가격의 제고를 위해 프랑스, 호주 및 미국계 제조업체와의 합작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칠레의 포도주는 향후 양질의 포도 생산을 위한 지리적 여건, 환경친화적이며 기술지향적인 생산 공정, 해외인지도의 제고 등에 의해 세계 시장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산 포도주는 현재 세계시장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향후 경쟁력을 제고하여 더 나은 양질의 포도주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출하는 방향으로 역점을 둘 것이며,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시장 확대의 한 방편으로 칠레는 FTA 체결 확대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 정부는 FTA 체결을 통한 교역 확대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2000년까지 연 4.4%의 성장과 2014년까지 1인당 GDP US\$ 10,0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력 수출상품의 하나인 포도주의 수출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상대국인 동남아 국가들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가 필요한 만큼 자국 시장의 개방과 연계해 상대국의 시장 개방 역시 요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칠레산 포도주의 수출진흥정책은 크게 3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 구조용 포도 품종의 개선 및 생산공정의 혁신으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고, 둘째, 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양한 무역협정을 통한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 셋째, 민·관 공동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시 등이다. 칠레는 상대국의 우수한 수입업자 내지 투자자를 칠레의 포도주 제조업체와 연계시킴으로서 시장 개척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며,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세미나, 시음회, 상담 등을 실시하는 한편 현지에 대리점을 개설하는 등의 방안으로 수출시장 확대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향후 유럽산 포도주와 차별화되는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윤국 cochoi@hanmail.net 국제농업연구실)

영국의 사유림 지원제도

영국의 국토면적은 약 22,752천ha이며 이 중에서 산림면적은 2,577천ha로 1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비교하면 국토면적은 2.3배정도 큰 반면에 산림면적은 우리의 6,436천ha 보다 적다. 영국의 산림면적 중 사유림의 면적은 1999년 현재 1,542천ha로 59.8%를 차지하고 있어 국유림 비율은 낮고 사유림 비율은 높은 산림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소유구조의 추이를 보면 국유림은 줄어들고 사유림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또한 사유림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지원책에 따라 산림면적의 비율도 1995년의 9%에서 1999년의 11%로 2% 가량 증가하였다.

1. 영국의 사유림지원제도의 전개

1.1. 1988년 임업세제 개정과 새로운 보조금제도 도입

1970년대 말의 보수당 정권 탄생에 따라 주장된 국유림 사업규모의 축소, 사유림에 대한 조성의 강화라는 방향은, 제2차 대전후의 영국임정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가져왔고 그 기조는 현재에 달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1988년이 되면서 사유림의 중시라는 방향과 역행하는 듯한 정책변경이 실시되었다. 즉, 임업세제의 개정이다.

임업소득에의 우대세제는,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노동당 정권시대의 높은 누진세율에 허덕였던 고액납세자에게 있어서는 세금의 회피수단으로서 크게 이용되었다. 그 중에는 자금을 빌려서까지 임지를 구입하기

도 하고 또는 임업활동을 행하고 있는 회사나 단체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를 이용한 고액납세자에 의한 세금의 회피의 수단이며, 대규모 침엽수 조림은 「모포를 깐 것 같은 조림」(blanket afforestation)이라고 할 정도로 단조로운 경관을 만들게 되는데 국민의 일부나 환경그룹에 의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1985년 7월에 정부의 「활엽수림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3년째에 해당하는 1988년 가을 경부터, 그 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재검토가 실시되고, 그 결과에 대한 정부의 결론이 1990년 7월에 발표되었다. 그것은 1985년 이후의 활엽수림에 대한 일련의 정책조치를 평가하면서도 현재 정책에서는 조림에서 목재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장기간의 관리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내용이었다. 그 결과 1988년의 임업세제의 변경도 고려하여 활엽수림뿐만 아니라 침엽수림에 대해서도 1992년에 경영보조금을 도입하게 되었다.

1.2. 1990년 보조금 재검토

1980년대 후반부터 실시중인 보조금제도의 유효성이 정기적으로 재평가되게 되고, 1990년에는 2년마다 행해진 Woodland Grant Scheme(WGS, 산림보조금제도)에 의한 보조금의 최초 재검토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WGS의 조림보조금액은 그대로 두었으나, 1988년에 도입된 Better Land Scheme(BLS)는 저지의 우량지에서의 조림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90년 10월부터 침엽수조림은 ha당 400파운드, 활엽수는 600파운드로 인상되었다(당초에는 침·활 모두 200파운드).

1992년 6월에는, WGS에 Community Woodland Supplement(CWS, 지역사회산림공급제도)가 더해졌다. 이것은, 시가지의 끝에서 5마일 이내의 시민에게 레크레이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림할 경우, WGS의 새로운 임지에 대한 조림보조금에 더하여 ha당 950파운드를 할증 보조하는 것으로, 도시주변의 산림 조성을 장려하는 것이다.

1990년대는 또 산림이 지구온난화 방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널리 인식되어 온 시기도 있었다. 「이 공통유산」(This Common Heritage)이라고 제목 붙인 1990년의 정부 환경백서는 산림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또 Community Forest 등의 새로운 형태의 조림조성책, 활엽수의 조림 등 정부의 정책에서도 언급한 호의적인 것이었다.

또, 의회 위원회에 의한 임업정책의 방법에 대해서 검토한 조사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었다. 1990년 2월의 하원농업위원회에 의한 「토지이용과 임업」(Land Use and Forestry) 및 1993년 3월의 하원환경위원회에 의한 「임업과 환경」(Forestry and the Environment)이 그것이다. 산림이 지닌 레크레이션이나 경관, 원재료의 제공, 대기중의 이산화탄소고정 등의 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존 산림의 지속적인 관리와 새로운 산림의 착실한 확대라는 두 가지를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1.3. 1992년 보조금 재검토

1992년 10월에는 WGS의 제2차 재검토가 실시되었다. 이 때도 공공지출의 삭감을 위해 보조금액의 인상은 다시 보류되었으나, 새로이 매년 지급되는 경영보조금이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표준보조금과 특별보조금의 2종류가 있으며, 전자는 보육시업의 촉진과 그에 따른 환경적 가치의 증대를 목표로 한 것으로, 침엽수림의 11~20년생에서 ha당 연 10파운드, 활엽수림의 11~40년생에서 ha당 연 25파운드가 지급되었다. 후자는 자연의 보전이나 경관, 국민의 레크레이션에 대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 또는 산림으로의 접근이나 레크레이션 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해서, 11년생 이상의 산림에 대해서 ha당 35파운드가 지급되었다. 더욱이, 10ha 이하의 소규모 산림에 대해서 약간의 할증보조도 지급되었다. 또, 포플러나 오리나무, 버드나무(보통, 수양버들)와 같은 단벌기 관목림의 구성에 대해서도 비로소 보조금의 지급이 개시되게 되었다.

1.4. 1993년 임업 재검토

정부는 1994년 7월에 WGS를 큰 폭으로 개정하였다. 그 중요한 점은, 새로운 임지에 대한 조림과 재조림에 대한 보조금에 격차를 두어, 재조림에 대한 보조금액을 큰 폭으로 인하하였다. 식재규모는 침엽수에서는 그때까지 ha당 325파운드로, 활엽수에서는 같이 975~1,575파운드가 525파운드로 인하여 최대로 약 1/3 정도 감액되었다. 한편, 새로운 임지에 대한 조림에 대해서는 침엽수에서는 700파운드, 활엽수에서는 10ha 미만의 1,175~1,575파운드를 일률적으로 1,350파운드, 10ha이상은 975파운드를 1,050파운드로 변경하였다. 개정전의 보조금과 비교하면, 활엽수에서는 3ha 이상, 침엽수에서는 10ha이상이 증액되고 있다.

게다가, 이 때 BLS는 침엽수만 200파운드 인상하여 활엽수와 동액인 600파운드로 하였다. 한편, 이제 막 발족된 경영보조금 중 표준보조금은 폐지되었고, 산림으로의 시민의 접근을 개설하기도 하고, 환경 또는 경관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ha당 연간 35파운드를 10년간 지급하게 되었다.

또, 특정한 지역을 타겟으로 하여 일정기간만 조림을 장려하기 위해, WGS의 조림보조금에 추가로 덧붙여 보조하는 특정지역할증금(Locational Supplement)도 도입되었고(실시는 1995년 4월) 할증금액은 ha당 600파운드였다. 더욱이, 목재생산, 경관의 향상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잉글랜드 중앙부에서 조성중인 「국민의 숲」에서 신청자가 조림계획과 그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하면, 그 중에서 FC가 그 목적에 합치한다고 판단한 경우만을 보조대상으로 하는 「국민의 숲 육성계획」(National Forest Tender Scheme)이 새로이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보조금은 Challenge Fund라 부르며, 일정조건을 만족한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종래의 보조금 지급 시스템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또, 이것은 예산 총액과 실시기간(1995년~1998년)이 한정되었다.

또, 환경적으로 중요한 산림을 방목가축에 의한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농민에게 지불하는 가축배제지불제도(Livestock Exclusion Annual Payment, ha당 80파운드를 10년간), 및 포플러나 버드나무 등의 단벌기산림(Short Rotation Coppice)의 새로운 임지에 대한 조림에 대한 보조금(Set-Aside지에서 ha당 400파운드, 非Set-Aside지에서 600파운드)도 도입되었다. 이 외에, 시민의 산림으로의 접근을 제공(보도건설이나 개량, 표식의 설치 등)하는 것에 대해서 정률(인정경비의 5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산림개량보조금(Woodland Improvement Grant, WIG)을 설정하게 되었다(실시는 1995~1997년도).

2. 현행 영국의 사유림 지원제도

2.1. Woodland Grant Scheme(WGS, 산림보조금제도)

Woodland Grant Scheme(WGS, 산림보조금제도)는 목재생산의 증가, 주변 경관(landscape)의 개선, 자연생태계 유지, 레크레이션과 스포츠를 위한 기회 제공, 기존 산림지의 내실 있는 경영을 위한 지원, 농촌 및 산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제공, 농업에 대한 토지이용 이외에 새로운 이용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 현재 WGS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는데 새로운 임지에 대한 지원과 기존 임지를 재조림할 때 지원하는 형태이다. 새로운 임지에 대한 보조는 침엽수의 경우 10ha 이하나 이상 모두 £700/ha를 보조해 주고 있으며, 활엽수의 경우는 10ha 이하시 £1,350/ha, 10ha 이상시 £1,050/ha을 지원해 준다. 또한 새로운 임지에 대해서는 WGS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Better Land Contribution(BLC, 우량지 기여금)는 경작지나 개량초지 혹은 곡류재배지에 조림할 경우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규모는 £600/ha이다. 그리고 Community Woodland

Contribution(CWC, 지역사회산림기여금)는 공공레크리에이션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도시나 마을 주변에 새로운 임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지원규모는 £950/ha이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에서 새로운 임지에 조림할 때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Community Forest Premium(CFP, 지역사회산림할증금)이며, 지원규모는 £600/ha이다. 그리고 Short Rotation Coppice(SRC, 단벌기조림보조금)는 단벌기로 운영하기 적당한 지역에서 포플러와 버드나무를 조림할 경우 지급하는데 5년간 계약조건을 유지해야하고, 지급액은 Set-aside land의 경우 £400/ha이고 Non set-aside land는 £600/ha이다.

2.2. Farm Woodland Premium Scheme(FWPS, 농지조림장려제도)

농지조림장려제도(Farm Woodland Premium Scheme, FWPS)는 농지에서 농업을 통해 얻었던 소득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매년 지급되는 지불금액(payment)을 의미한다. FWPS는 농지에 새로운 임지 조성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농경지에 임지를 조성함으로써 환경적 이익을 증가시키고, 특히 주변경관을 가꾸고, 동식물에게 새로운 안식처 제공, 생물다양성 증대가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FWPS는 10년내지 15년에 걸쳐 매년 지급되는데 15년 동안 지급할 시에는 나무식재 면적의 50% 이상을 활엽수로 하거나 스코틀랜드산 소나무(native Scots pine)를 식재하여야 하며, 30년 내에 벌채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10년 동안 지급할 때에는 침엽수를 50% 이상 식재해야 하며 20년 내에 벌채하여서는 안 된다는 부대조항이 붙게 된다.

FWPS의 지급율을 살펴보면, 조건불리지역 이외와 조건불리지역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조건불리지역 이외에서는 경작지의 경우 ha당 £300, 기타 개량지는 ha당 £260를 지급하며 미개량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에서는 열등지와 최열등지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열등지의 경우 경작지 £230, 기타 개량지 £200, 미개량지 £60를 ha당 지원하고

있으며,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경작지 £160, 기타 개량지 £140, 미개량지 £60를 ha당 지급하고 있다.

표 1 현행 영국의 사유림지원 제도

보조금명	WGS 산림보조금제도 1988년~	BLC 우량지기여금 1988년~	CWC 지역사회산림기여금 1992년~	CFP 지역사회산림할증금 1995년~
지급금액 · ha당금액	*새로운 임지의 경우, 침엽수는 일률 700파운드, 활엽수는 10ha이하는 1,350파운드, 10ha이상은 1,050파운드. *기존 임지의 재조림의 경우, 침엽수 325파운드, 활엽수 525파운드 *그 밖에 경영보조금 35파운드	경작지, 개량초지, 곡류재배지에 대하여 새로운 임지에 조림할 경우, WGS의 새로운 임지에 대한 보조에 추가로 덧붙여 600파운드	도시나 마을로부터 5마일 이내의 토지에 새로운 임지에 조림할 경우, 국민에의 레크레이션을 위한 접근의 제공에 대해 WGS의 새로운 임지에 대한 보조에 추가로 덧붙여 950파운드	특정지역에 대해서 WGS의 새로운 임지에 대한 보조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인센티브로 600파운드.
보조금명	SRC 단벌기조림보조금 1994년~	WIG 산림개량보조금 1995년~	FWPS 농지조림장려제도 1992년~	
지급금액 · ha당금액	단벌기로 운영하기에 적당한 지역에 포플러나 버드나무를 새로운 조림할 경우 Set-Aside land에서는 400파운드. 그 이외 (Non set-aside land)는 600파운드	임지에서의 공공레크레이션 제공, 관리되지 않아 상업적 가치가 적은 임지에 내실 있는 경영 도입, 생물다양성 증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50% 지급,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Challenge Fund제	(표 2 참조)	

표 2 농지조림장려제도(FWPS) 지급율

단위 : £/ha/년

토지종류	조건불리지역 이외	조건불리지역	
		열등지	최열등지
경작지	300	230	160
기타 개량지	260	200	140
미개량지	적용안됨	60	60

주 : 지급율은 최소 5년마다 재검토됨.

(김용렬 kimyl@krei.re.kr 산림정책연구실)

MMA 실시율, 미국과 EU가 저조

WTO 가맹국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최저한의 수입을 약속한 MMA에 대하여 미국과 EU의 실시율이 66%(1998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10월 21일, 일본 농림성 조사로 밝혀졌다.

이러한 국가의 실시율이 낮다는 것이 WTO 농업협상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실시율이 100% 이하인 농산물이 많은 가운데, 일본의 쌀이나 캐나다의 버터 등 국영무역 품목이 완전 실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무역과 국영무역이라는 제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잉미 문제로 생산조정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EU 이외의 국가로서 일본의 실시율이 67%로 미국·EU 보다 1% 포인트 높다. 한국은 70%, 캐나다는 85%이다. 케언즈 그룹의 리더인 호주는 91%이다.

실시율이 낮은 것은 실제 수입량이 약속한 수입량에 달하지 않아도 협정위반을 문제시하지 않는 민간무역 농산물이 대부분이다. 미국은 낙화생이 100% 실시율이지만 쇠고기는 72.9%, 농축우유는 71.1%이다. 또한 뉴질랜드의 사과는 불과 3.7%, 캐나다의 마아가린은 6.4%에 머물고 있다.

100% 실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이 일원적으로 수입하는 국영무역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이다. 일본의 쌀이나 캐나다의 버터,

한국의 쌀 및 쌀 가공식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MMA는 시장개방의 촉진을 목적으로 UR 농업협상에서 도입이 결정되었다. 수입이 국내 소비량의 5% 미만인 농산물은 국내 소비량의 3~5%에 대해 저관세 또는 제로관세에 의한 수입기회(최소시장접근, MMA)의 제공이 요구되었다. 또 수입이 5% 이상이었던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기회(현행시장접근, CMA)가 요구되었다. 단지 이러한 것은 수입기회의 「약속」이며, 100% 실시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쌀이나 유제품과 같이 국가기관이 MMA 분을 일원적으로 수입하는 국영무역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 수급에 관계없이 「수입의무」로 해석되고 있다.

(자료 : 日本農業新聞, 2000년 10월 22일자에서)



국제기구 논의동향

제3차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논의동향

제3차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논의동향

뉴라운드가 출범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농업협상은 지난 3월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제1차 특별회의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제2차 특별회의 지난 6월 말, 그리고 제3차 특별회의가 지난 9월말에 개최된 바 있으며 앞으로 제4차 특별회의가 11월 중순경에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WTO는 가능한 금년 중에 회원국들에게 협상의 내용과 목표,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그 후 연속되는 특별회의를 통해 각 회원국이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한 논의를 통해 협상을 위한 골격(Modality)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는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향후 협상의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각국의 의견과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차기 농업협상의 골격 마련을 위해 진행중인 일련의 과정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제 3차 특별회의에서는 지난 2차 특별회의에 제출되었으나 시간관계상 논의가 지연된 미국의 차기 협상 관련 포괄적 내용을 담은 종합제안서와 EU가 제출한 생산제한하 직접지불(Blue Box), 식품의 질(Food Quality), 동물복지 및 수출경쟁 등 4개의 제안, 그리고 이번 회의에 새로 제출된 케언즈그룹의 국내보조관련 제안, 쿠바 등 11개 개도국이 공동 제출한 시장접근관련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대폭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주창하는 비보조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그룹과 점진적인 무역자유화를 요구하는 농업의 비교역적기능 그룹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 가운데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우리나라 등 26개국(당초

23개국에 이스라엘, 마다가스카르, 도미니카 추가합류)명의의 농업의 비교 역적기능(NTC) 관련 공동제안에 대해서는 논의 시기와 관련한 양측의 논쟁과 시간제약을 이유로 남미경제공동체(Mercosur)가 제출한 수출보조관련 제안과 함께 차기 특별회의(2000. 11)에서 논의기로 하였다.

금번 제3차 특별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이 차기 농업협상을 통한 농업개혁을 위해 제안한 포괄적 협상제안서에 대해서 브라질·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케언즈 그룹 국가와 일부 수출개도국들은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피력하였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파키스탄은 미국이 농산물 관세를 실행관세 기준으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 지난 UR 협상에서 합의된 양허관세를 기준으로 관세인하를 해야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필리핀과 파키스탄 등 개도국들은 미국의 특별긴급관세제도(SSG) 철폐주장에 대해 개도국에게는 계속해서 특별긴급관세제도가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수입국들은 미국의 포괄적인 협상분야별 제안은 농업협정 20조의 기본정신과 의도(Mandate)를 벗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국의 다양한 농업여건을 강조하면서 현재 농산물의 높은 관세 및 품목간 관세격차 문제는 UR협상의 결과로써 합법적이고 당연한 것이며 향후 농업개혁과정에서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해소되어야 하고 관세감축은 미국 제안처럼 실행관세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며 양허관세를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EU가 제안한 생산제한하 직접지불(Blue Box)정책의 지속적인 감축의무 면제와 관련된 논의에서 케언즈 그룹과 미국은 EU가 시행하고 있는 Blue Box가 무역왜곡적 효과가 크고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다른 감축대상보조와 같이 취급되어야 함을 주장한 반면,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헝가리,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은 Blue Box는 무역왜곡효과가 적음을 지적하면서 EU주장을 지지하였다. EU는 OECD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Blue Box는 무역왜곡효과가 적

다는 주장을 폈으나 미국 등 수출국들은 OECD 보고서가 최종적인 보고서가 아니며 중간결과를 그대로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EU가 전통적으로 품질측면에서 비교우위를 누리는 농산물에 대한 보호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한 식품의 질(Food Quality)과 관련된 논의에서 대다수 수출국들은 이 문제는 각국의 지적재산권이나 원산지 표시(labeling) 등과 관계된 것으로 지적재산권(TRIPS)협상이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협상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헝가리,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등 유럽국가들은 이 문제가 농산물의 시장접근 문제와 관련된다고 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EU 입장을 지지하였다.

또한 농산물 생산 및 무역에 있어서 동물복지(Animal Welfare)를 고려해야 한다는 EU의 제안에 대해 대부분의 수출국들은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의 문제이며 특히 개도국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무역과 연계시켜서는 안됨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스위스는 이 문제를 다루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며 EU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EU는 수출경쟁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통해 수출보조와 수출신용은 동일한 무역왜곡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수출보조는 감축약속을 이행하고 있으나 수출신용은 규율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고 수출국영무역 및 식량원조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범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수출신용이 규율되어야 한다는 EU의 주장에 공감하였으나 수출국영무역의 규범제정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태국, 필리핀 등 수출개도국들도 WTO에서 수출신용에 대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수출국영무역은 상당정도 개도국의 식량안보와 가격안정 등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수출보조와 수출신용은 기능과 무역왜곡 효과가 다르므로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됨을 주장하고 수출신용 규범제정은 OECD를 중심으로 하고 수출국영무역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비보조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Cairns) 그룹은 국내보조와 관련된 제안에서 UR 협상의 감축약속에도 불구하고 총 농산물 보조수준이 UR 이전 수준까지 늘어났고 부유한 일부국가만이 지급하고 있다며 새로운 공식에 의한 감축 대상 농업보조액(AMS) 대폭 철폐 및 이행 초기 연도에 50% 이상 대폭 감축을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농업지원액(AMS)를 품목별로 감축하고 허용보조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요건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아세안(ASEAN) 지역 케언즈 그룹과 인도 등 개도국들은 이 제안을 지지하는 한편 개도국을 위한 추가적인 신축성 부여 등 개도국 우대조치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나 우리 나라를 비롯한 스위스·EU·일본·노르웨이·모르셔스·동구권국가 등은 동 제안이 협상의 기본정신(mandate)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여건을 가진 각국의 농업이 공존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쿠바 등 11개 개도국은 시장접근 관련 공동제안서를 통해 고율관세의 대폭감축, 관세구조의 투명성 제고(종가세 전환), 시장접근물량(TRQ) 관리 방법의 단순화와 품목별 배분, 동식물검역(SPS)조치의 무역장벽으로의 작용 억제 등을 주장하였다. 케언즈그룹, 미국, 나이지리아·케냐 등 대다수 개도국들은 기본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스위스는 고율관세가 관세화의 결과이며 점차 감축하고 있다는 점과 관세부과방식은 회원국의 권리인 점 등을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기존에 예상되던 바와 같이 협상쟁점별로 가능한 큰 폭의 농산물 수입개방과 보조금감축을 목표로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구체적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한 빠른 협상진행을 시도한 반면, 동구권 국가와 일부 수입개도국들의 협조로 다소 확대된 모양을 갖춘 농업의 다원적기능 주장그룹은 차기 협상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농업의 비교역적기능 고려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협상 추진을 강조함으로써 속도를 조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국내보조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기술작업단(Technical Working Party)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호주 등 케언즈 그룹이 우리나라 등이 공동 제출한 농업의 비교역적기능과 관련한 제안에 대해 성급하게 경계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 특기할 사항이며 더욱 많은 제안이 쏟아질 11월 회의부터 농업협상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협상진행 양상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급진적인 개혁안을 도출하려는 농산물 수출국들과 새로 출범할 뉴라운드 의 틀안에서 농산물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가급적 협상진행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수입국간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정빈 jeongbi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세계 농산물무역 정보

일본의 2000년 상반기 식료수입동향

일본의 2000년 상반기 식료수입동향

1. 개황

1999년 일본의 식료수입(달러기준)은 엔고 기조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5.3% 증가, 2000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에 비해 5.5% 증가하였다. 품목군 별로는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었던 1위의 어패류·동 조제품과 2위의 육류·동 조제품이 99년에는 전년에 비해 각각 15.5%, 15.6% 증가하였으며, 2000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9.5%, 13.0% 증가로 회복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1위인 미국은 점유율이 감소하는 한편, 2위인 중국은 점유율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양국에서 수입전체의 약 4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호주, 캐나다, 태국, 한국으로 이어져, 상위 6개국의 순위는 97년 이후 변함이 없다.

돼지고기는 1999년은 97년, 98년의 수입가격 하락으로 수량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2할 가까이 늘어났으며, 2000년 상반기도 전년동기에 비해 5.7% 증가하였다. 닭고기도 돼지고기와 같은 경향을 보여 99년은 전년에 비해 약 1할이 증가하고, 2000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4.9% 증가했다. 한편 쇠고기는 99년은 전년에 비해 1.7% 증가, 2000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3.3% 증가하여 안정된 수입이 계속되고 있다.

채소류는 신선·냉장 채소는 중국산의 수입유통루트가 정착됨에 따라 99년은 수량기준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 2000년 상반기는 전년동기대비 14.5%로 대폭 증가하였다. 과일류는 건강 식재로서 재평가된 바나나가 99년은 전년에 비해 13.7% 증가, 2000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8.2% 증가하는 등 현저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음료는 소비자의 건강지향을 반영, 미네랄워터가 99년은 전년대비 10.3% 증가, 2000년 상반기는 전년동기대비 20.1% 증가하는 등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 주요 품목별 동향

2.1. 육류·동 조제품-돼지고기·닭고기는 다시 증가 추세로-

육류·동 조제품의 수입도 99년은 금액기준으로 79억 8,400만달러(15.6% 증가), 수량기준으로는 229만 4,222톤(9.4% 증가)으로, 금액·수량이 함께 증가하였으며, 2000년 상반기에도 금액기준으로 43억 6,500만달러(13.0% 증가), 수량기준으로는 119만 5,892톤(5.6% 증가)으로 상승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금액기준 1위인 돼지고기는 99년은 전년의 수입이 억제되었기 때문에 61만 2,433톤(18.4% 증가)으로 2할 가까이 늘어났으며, 2000년 상반기에도 주요 수출국인 덴마크, 미국, 캐나다에서 수입 호조로 5.7% 증가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위인 쇠고기는 99년은 67만 7,372톤(1.7% 증가), 2000년 상반기도 3.3% 증가로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수출국으로는 미국과 호주가 9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위인 닭고기는 99년에는 55만 1,356톤(10.9% 증가)으로 약 1할이 증가, 2000년 상반기에도 4.9%의 증가를 보였다. 수출국으로는 1위의 중국이 안정적으로 증가경향을 보이고, 브라질에서의 수입이 현저하게 급증하고 있다.

2.2. 곡물·동 조제품-국제가격 하락으로 금액기준 감소-

곡물·동 조제품의 수입은 99년은 금액기준으로 국제가격의 하락으로 47억 8,700만달러(6.4% 감소)로 감소했지만 수량기준으로는 2,930만 6,423톤(3.0% 증가)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상반기에도 국제가격 하락세의 영향으로 금액기준 24억 7,800만달러(2.9% 감소)로 계속해서 감소, 수량기준으로도 1,456만 8,841톤(40% 감소)으로 감소하였다.

금액기준으로 1위인 옥수수는 99년은 1,660만 4,032톤(3.5% 증가)으로 증가했지만, 2000년 상반기에는 3.9% 감소하였다. 2위인 소맥도 99년에는 597만 3,373톤(3.7% 증가)으로 증가, 2000년 상반기에는 5.9% 감소로 옥수수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MMA 쌀은 99년에는 33.0% 증가한 66만 4,227톤으로 대폭 늘었다. 이것은 MMA 수량이 4월~익년 3월로 설정되어 있어, 1년 기준으로 수입량을 본 경우에는 증감폭이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2000년 상반기에는 1.1%로 약간 감소하고 있다. 사료곡물로 옥수수와 대체관계에 있는 수수는 99년에는 233만 9,792톤(12.9% 감소)으로 현저히 감소했지만, 2000년 상반기에는 3.8% 감소로 옥수수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맥아는 99년에는 76만 3,254톤 (0.9% 감소)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 2000년 상반기에는 7.1% 감소했다.

2.3. 채소·동 조제품 -양파는 7할 증가-

채소·동 조제품의 수입은 99년에는 금액기준으로 31억 7,500만달러(6.9% 증가), 수량기준으로 270만 4,349톤 (11.0% 증가)으로 금액·수량이 함께 증가했다. 2000년 상반기에는 금액기준으로 15억 4,900만달러(1.1% 증가)로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이며 수량기준으로는 148만 2,041톤(8.3% 증가)으로 증가했다.

표 1 일본의 품목군별 식료수입

단위 : 100만달러, %

품 명	1999년 (1~12월)			2000년 (1~6월)		
	금액	점유율	전년대비	금액	점유율	전년대비
수입총액	309,745		10.9	181,334		26.1
중 식료	44,298	100.0	5.3	22,799	100.0	5.5
어패류·동조제품	14,566	32.9	15.5	7,448	32.7	9.5
육류·동조제품	7,984	18.0	15.6	4,365	19.1	13.0
곡물·동조제품	4,787	10.8	△6.4	2,478	10.9	△2.9
야채·동조제품	3,175	7.2	6.9	1,549	6.8	1.1
과실·동조제품	2,662	6.0	18.7	1,505	6.6	8.4
음료	2,212	5.0	△13.9	1,024	4.5	2.3
유지종자	2,014	4.5	△13.5	1,041	4.6	△3.2
조제사료 등	1,957	4.4	△4.5	1,026	4.5	6.0
커피·코코아 등	1,782	4.0	△9.3	892	3.9	△2.3
낙농품·계란	876	2.0	△1.6	436	1.9	0.1
기타 조제식료품	739	1.7	11.2	384	1.7	1.5
동식물성유지	565	1.3	△14.7	243	1.1	△17.3
견과류·동조제품	497	1.1	1.4	195	0.9	11.2
사탕류·동조제품	455	1.0	△22.8	200	0.9	△5.1
산동물	28	0.1	△20.6	13	0.1	△3.1

자료 : 大藏省 貿易統計

신선·냉장 채소는 99년은 금액기준으로 9억 6,000만달러(2.6% 증가), 수량기준으로는 87만 4,554톤(18.3% 증가)으로 전년 국산의 불황을 계기로 시작된 증가 기조가 계속되고 있으며, 2000년 상반기에도 금액기준으로 4억 5,400만달러(5.5% 증가), 수량기준으로는 50만 4,612톤(14.5% 증가)으로 같은 기조이다. 99년에는 양배추 9만 1,239톤(21.4% 증가), 아스파라거스 2만 4,466톤(23.0% 증가), 호박 15만 3,964톤(19.5% 증가) 등 수입이 정착되어 있는 품목의 수입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2000년 상반기에는 아스파라거스는 5.4% 증가로 증가했지만, 양배추와 호박은 각각 12.2%, 6.2% 감소로 감소추세에 있다. 양파는 99년에는 22만 3,435톤(9.2% 증가)으로 늘고 있지만, 2000년 상반기에는 홋카이도산의 감소로 미국·뉴질랜드산 수입이 늘어 72.4% 증가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중국산이 거의 전량을 차지하는 표고버섯은 99년은 3만 1,628톤(0.7% 증가)으로 전년수준에 그쳤지만, 2000년 상반기에는 36.0% 증가로 급증하였다.

냉장 채소는 99년에는 금액기준으로 8억 3,800만달러(4.3% 증가), 수량기준으로는 68만 9,468톤(5.6% 증가)으로 금액·수량이 함께 늘었다. 2000년 상반기에는 금액기준으로 3억 9,700만달러(1.7% 감소), 수량기준으로는 32만 6,905톤(1.6% 감소)으로 감소하고 있다. 미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자는 99년에는 28만 1,190톤 (5.5%증가)으로 늘었지만, 2000년 상반기에는 3.0% 감소로 감소하고 있다. 중국산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던 풋콩은 99년에는 7만 3,075톤(7.1% 증가)으로 증가하는 등, 중국산이 현저하게 늘어 미국산과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2.4. 과실·동 조제품-바나나가 대폭 증가-

과실·동 조제품의 수입은 99년에는 금액기준으로 26억 6,200만달러(18.7% 증가), 수량기준으로는 244만 5,759톤(10.5% 증가)으로 금액·수량이 함께 현저히 증가하였다. 2000년 상반기에도 금액기준으로 15억 500만달러(8.4% 증가), 수량기준으로는 144만 503톤(12.8% 증가)으로 증가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표 2 일본의 상위 10대 식료수입국

단위 : 100만달러, %

순 위	1999년 (1~12월)			2000년 (1~6월)		
	수입액	점유율	전년대비	수입액	점유율	전년대비
(1) 미국	11,903	26.9	2.2	6,348	27.8	5.2
(2) 중국	5,413	12.2	13.7	3,021	13.2	12.9
(3) 호주	2,993	6.8	7.0	1,496	6.6	9.3
(4) 캐나다	2,442	5.5	5.3	1,212	5.3	6.9
(5) 대만	2,165	4.9	3.8	1,049	4.6	2.1
(6) 한국	2,027	4.6	17.0	8,78	3.9	△1.3
(7) 러시아	1,200	2.7	32.0	6,40	2.8	17.1
(8) 프랑스	1,198	2.7	△12.7	615	2.7	14.2
(9) 인도네시아	1,120	2.5	△10.9	587	2.6	5.6
(10) 덴마크	1,018	2.3	45.8	5,4	2.6	1.9
상위10개국 소계	31,479	71.1	6.4	16,429	72.1	7.1
세계합계	44,298	100.0	5.3	22,799	100.0	5.5

자료 : 大藏省貿易統計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신선·냉장 과실은 99년에는 금액기준으로 14억 6,300만달러(15.4% 증가), 수량기준으로는 166만 179톤(7.5% 증가)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상반기는 금액기준으로 8억 9,300만달러(13.2% 증가), 수량기준으로는 101만 8,677톤(16.2% 증가)으로 대폭 증가되었다. 최대의 수입품목인 바나나는 건강식재로서 재평가된 영향으로 99년에는 98만 3,204톤(13.7% 증가), 2000년 상반기에도 18.2% 증가로 현저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그레이프 후르츠는 99년에는 미국 플로리다 산이 맛이 좋아 26만 2,416톤(14.1% 증가)으로 증가했지만, 2000년 상반기에는 1.0% 감소로 전년동기수준이다. 오렌지는 99년은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봄에 걸쳐 미국을 덮친 대한파로 인해 산지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8만 9,703톤(40.4% 감소)으로 급감했지만, 2000년 상반기에는 전년의 반동으로 85.3%로 격증했다. 체리는 99년에는 전년 하락의 반동으로 1만 5,891톤(119.1% 증가)으로 배가하였으며, 2000년 상반기에는 6.9% 증가하였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무설탕식품 붐으로 최근 감소 경향에 있는 과실 음료는 99년에는 금액기준으로 4억 2,900만달러(21.8% 증가), 수량기준으로는 26만 9,927톤(17.5% 증가)으로 금액·수량이 함께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2000년 상반기에도 금액으로 2억 2,300만 달러(6.9% 증가), 수량기준으로는 13만 8,069톤(6.2% 증가)으로 증가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주력인 오렌지 주스는 99년에는 10만 3,347톤(9.4% 증가)으로 증가, 2000년 상반기에도 5.7% 증가하였다. 또한 사과주스도 99년에는 17.6% 증가한 7만 6,869톤, 2000년 상반기에는 20.3%증가하는 등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자료 : [http : //www.jetro.go.jp/ged/j/press/2000_10_18.html](http://www.jetro.go.jp/ged/j/press/2000_10_18.html)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세계농업뉴스 제3호 (2000. 11)

등 록 제5-10호 (1979. 5. 25)

인 쇄 2000년 11월

발 행 2000년 11월

발행인 강정일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